

Media Hype



Focus



Ball and Chain



Rolex Tower Soundwave

James Clar's work is an analysis and observation on the affects of media and technology on our perception of culture, nationality, and identity. His interest is in new technology and production processes, using them as a medium, while analyzing and critiquing their modifying affects on human behavior. By developing his own systems with which to manipulate light, he discovered he could create unique visual displays, as well as circumvent the limitations of screen-based work, namely resolution and two-dimension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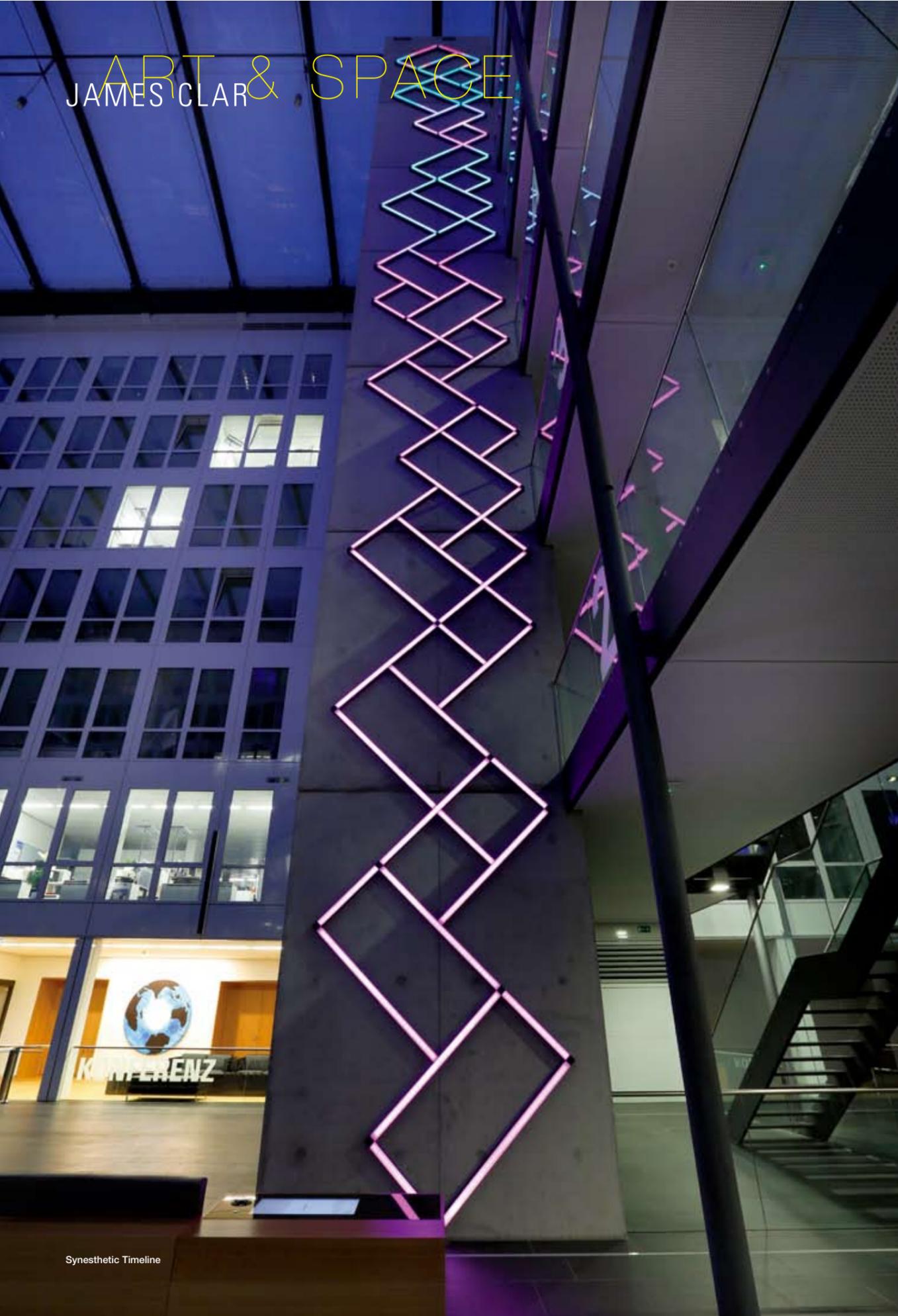
300 fluorescent colored light bulbs create an explosion of light and with it spells out the words 'Media Hype'. We live in a media saturated society with images bombarding us from TV, computers, cellphones, electronic billboards, and more. As we become numb and accustomed to one medium a new and more attention grabbing one comes to take its place. Installed at The Pavilion in front of the Burj Khalifa in Dubai, the world's largest tower, the installation <Media Hype> comments on the city that was built through effective PR and media hype.

In the work <Focus>, fluorescent lights are mounted horizontally on the wall. Within the lines of light the word 'Focus' is written. Using cursive writing, the line goes from crisp to blurry as the word goes from direct light to indirect light. This causes the lettering to go in and out of focus.

제임스 클라의 작업은 문화, 국적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미디어 기술의 영향에 대한 분석 및 관찰을 담고 있다. 그는 작품의 주제이자 소재인 신기술과 제작과정에 관심이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비평한다. 제임스 클라는 빛을 다루는 자신만의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화면을 기반으로 한 작업의 평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독창적인 조형성을 보여준다.

300개의 유색 형광등은 '미디어 하이프' 라고 쓰인 단어로부터 빛이 쏟아져 나오는 듯한 모양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텔레비전, 컴퓨터, 전화, 전광판 등으로부터 나오는 이미지의 홍수로 인해 미디어로 포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점점 미디어에 익숙해지고 둔해짐에 따라 더욱 새롭고 눈길을 사로잡는 이미지 매개체가 등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인 두바이의 부리 칼리파 앞에 마련된 파빌리온에 설치된 작품 <미디어 하이프>는 효과적인 광고와 선전에 의해 만들어진 한 도시에 대한 일종의 비평이다.

작품 <초점>에서는 형광등이 벽면에 가로로 고정되어 있다. 선으로 된 불빛 사이로 '포커스' 라는 단어가 필기체로 쓰여 있으며, 직접조명이 간접조명으로 변함에 따라 단어의 선도 뚜렷해졌다가 흐려진다. 이는 글자의 초점이 맞았다가 다시 맞지 않게 하는 효과를 준다.



Synesthetic Timeline



Plotted Coordinates



Thermal Energy

<Synesthetic Timeline> is a permanent installation in the Fraport headquarters in Frankfurt Germany. It consists of two audio interactive light installations that convert live sound into geometric lines of light. These two large wall pieces monitor the live ambient noises in the lobby and translate them into light animations that travel up the elevator walls. The bottom of the wall displays the current sound levels, which then move up the geometric structure, allowing people to see the sound and a visual chronology of sound in the space. The installation changes and morphs according to the sound activities in the building environment and as planes fly over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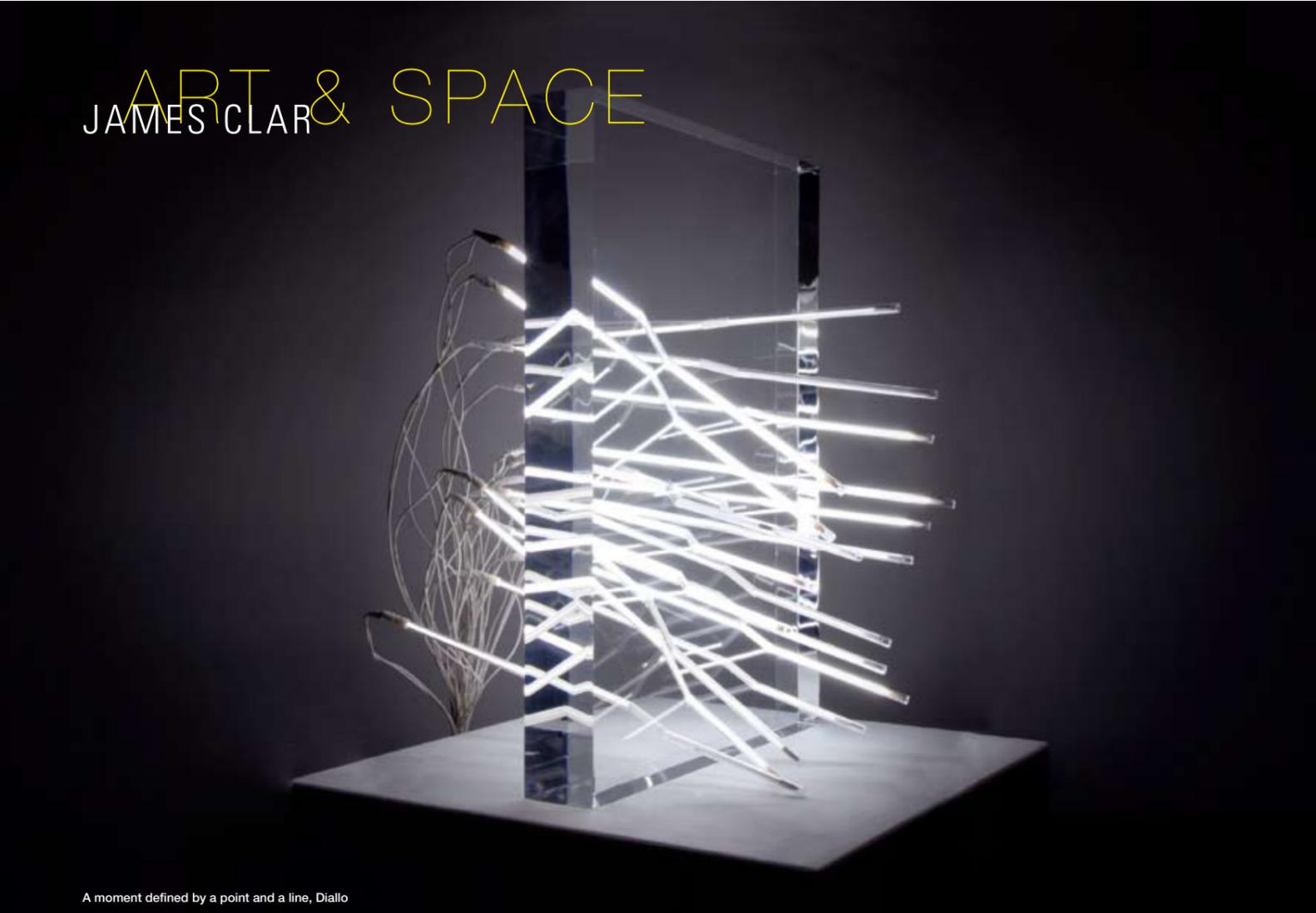
<Plotted Coordinates> is a piece that references the spatial information of three dimensional objects. The steel beams create a grid XYZ reference point in which a jagged line move through (Up, Down, Left and Right) spatially plotting coordinates to create a three dimensional form. The lights are filtered to run through the spectrum of colors, alluding to the various colors an object might be.

In <Thermal Energy>, an array of lights intersect through a fence at an angle, with the colors visualizing hot air rising and cold air sinking. This work visualizes what is invisible, air, and shows it passing through a fence, letting the viewer think about air as a substance that fills all open spaces and travels through fences, borders, etc.

<공감각 연대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프라포트 본사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작품이다. 두 개의 오디오 인터랙티브 조명으로 구성된 이 설치물은 실제 외부소리를 기하학적인 불빛의 선으로 전환한다. 즉, 이 대규모의 두 벽면 작품은 로비 주변의 소리를 감지하여 벽을 타고 올라가는 빛의 영상으로 변환된다. 벽의 바닥 부분은 현재의 소음 수준을 보여주는데, 그 정도에 따라 기하학적 구조물이 움직여 소리를 시각적인 연대표를 통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설치물은 건물 내의 음향 활동이나 하늘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에 따라 바뀐다.

<구획된 좌표>는 3차원적 오브제의 공간적인 정보를 참조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철제로 된 광선은 공간 내에 짜인 좌표형태를 통해 XYZ 지점을 가리키는 들쭉 날쭉한 선을 만들어주며, 불빛은 다양한 색의 물체를 암시하는 유색 스펙트럼을 통해 발광한다.

작품 <열에너지>에서 조명의 배열은 기울어진 채로 울타리에 교차해 있는데, 위로 상승하는 뜨거운 공기와 하강하는 차가운 공기가 색을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시각화하고 그것이 울타리를 통과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관람객으로 하여금 공기를 모든 개방된 공간을 채우고 경계를 넘나드는 하나의 물질로써 인식하게 한다.



A moment defined by a point and a line, Diallo



A moment defined by a point and a line



A moment defined by a point and a line, Malcom X



A moment defined by a point and a line, Faisal

The works in this series <A Moment Defined by a Point and a Line> visualize the historical assassination of Malcolm X, King Faisal, and Amadou Diallo. They reduce a pivotal moment in history to basic math - the point of impact for each bullet and the angle of trajectory - displayed as lines of light intersecting a clear acrylic block. Malcolm X was shot 15 times during one of his speeches on black nationalism. King Faisal of Saudi Arabia was shot in the head by his nephew twice, in what is believed to be a CIA driven assassination. Guinean immigrant, Amadou Diallo, was living in the NYC metro area when he was shot at 41 times by police with 19 of the bullets hitting him, all policemen involved were found not guilty to manslaughter. All three men were Muslim. This series asks the viewer to consider the cultural impact each of these people had in their time and the lasting effects they have in present day society. Text edited by Liz Yisun Kwon / Curator, Editor : Kim Jayoung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Carbon 12

**James Clar : James Clar was born in 1979 (USA), and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Brooklyn, New York. Clar studied film as an undergraduate at New York University focusing on 3D Animation, then continued on to his Masters at NYU's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s Program. In 2007 he moved to Dubai and lived there till 2012. While his early work dealt with analyzing how technology and media work, his experiences in the Middle East saw his focus shift to how technology and media affect. This included themes of nationalism, globalism, and popular culture in the age of mass information.**

<점과 선에 의해 규정된 순간>의 시리즈 작품은 말콤 엑스, 파이살 왕, 아마두 디알로의 역사적인 암살 사건을 형상화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총알과 탄도의 지점을 수치화하여 아크릴 블록을 관통하는 광선으로 표현됐다. 말콤 엑스는 흑인 민족주의에 대한 연설 중에 열다섯 차례 총을 맞았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파이살 왕은 CIA에 조정되었다고 알려진 그의 조카에 의해 머리에 총을 두 발 맞았다. 기니 이민자이며 뉴욕에 살았던 아마두 디알로는 경찰이 쏜 41발 중 19발을 맞아 죄 없이 사망했는데, 이후 모든 경찰은 살인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났다. 이 세 명의 남자들은 모두 이슬람교도였다. 이 시리즈 작품은 해당 사건과 대상들이 당시 문화적으로 어떤 충격을 줬으며,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람객에게 묻고 있다.

글 편집 : 권이선 / 큐레이터, 편집 : 김자영 기자 \*\*\*저작권은 작가와 카본 12에 있다.

제임스 클라 : 제임스 클라는 1979년생으로 뉴욕 브루클린에서 거주하며 작업한다. 클라는 뉴욕대에서 3D 애니메이션을 중점으로 한 영상을 전공했으며, 석사과정으로는 뉴욕대의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마쳤다. 2007년에 그는 두바이로 옮겨 2012년까지 그곳에서 작업했다. 기술과 미디어 자체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주로 다뤘던 초기 작품과는 달리, 중동에서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기술과 미디어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로 초점이 바뀌게 했다. 이러한 작업은 무한한 정보의 시대 속 민족주의, 전세계주의 그리고 대중문화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